

나무 6만그루 식재 열섬현상 완화

전주시, 올해 '온통 숲 프로젝트' 추진... 덕진 무장에 나눔길 서서학동 예술촌 가로녹지변 등에 조성키로... 미세먼지 흡수 효과도

전주시가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심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나들목과 도심 생활권 곳곳에 총 6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시는 도시 전체를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도심 곳곳에 생태 숲을 만드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나눔길과 도시숲, 도심쉼터, 시티가든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온통 숲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건강 및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도심 숲 조성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생활권 곳곳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지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도심 속 녹지공간이 확충되면 열섬 현상이 완화되고 미세먼지 흡수를 통해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1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덕진 무장에 나눔길 조성 1개소 0.35ha(5억원), 도시숲 조성사업 3개소 0.7ha(2억8000만원), 도심쉼터 조성 2개소 0.19ha(2억2500만원), 아중역 시티가든 조성사업 1개소(1억9000만원) 등 8곳에 총 6만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우선, 덕진 무장에 나눔길 조성사업은 전북대학교 구성문에서 덕진공원 구간 대학 캠퍼스 일부를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 이용자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돌레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주의 주요 관문인 전주 IC 진입 교차로와 송고개 교차로 부근 교통섬에는 도시숲을 조성, 전주의 첫인상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서학동 예술촌의 침체되어 있는 가로녹지변에는 곡산형태의 다양한 계절꽃이 있는 화단을 만들어 화사한 공간으로 재장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마트 보행자 도로와 천마산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생활

권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쉼터 조성사업을 추진, 활기 넘치는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아중역은 한옥마을과 아중호수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키기 위해 열린 녹색공간으로 만드는 시티가든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시는 온통 숲 조성과 함께 공공건물 내 옥상녹화사업과 벽면녹화를 꾸준히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심생태계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축과 전주의 관문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16억여원을 들여 아파트숲, 가로변녹지숲, 옥상녹화 및 사회복지시설 등 총 11개소에 도시숲을 조성했다. /김민근 기자



떼죽음 당한 물고기 13일 정읍천에 물고기 수백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다. 정읍시는 행위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카들과 잠자던 처제 성추행 40대 집유 4년

전주지법,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3일 잠을 자던 처제를 성추행 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중간제추행)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5시30분께 전북의 한 주택 안방에서 추석 명절에 친정집에 내려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40)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제가 아이들과 함께 잠든 방에 들어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가하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U-20 월드컵 트로피가 온다'

14일 제주에서 시작 개최도시 6곳 순회전시 전주에선 29일 중앙실림광장서 행사 열어

5월 20일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트로피가 6개 개최도시를 찾아가다.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위원장 정동규, 이하 조직위)가 14일 제주를 시작으로 대회가 열리는 수원, 전주, 인천, 천안을 약 한 달간 순회하는 '트로피가 온다' 행사를 진행한다.

'트로피가 온다'는 FIFA U-20 월드컵 진품 트로피를 전시하여 개최도시 및 인근 지역 축구 팬들이 트로피를 직접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로 성인월드컵의 '트로피 투어'와



같은 개념의 이벤트다. 트로피 관람뿐만 아니라 개최도시별 대회 홍보대사 팬미팅 및 사진촬영, FIFA U-20 월드컵 전시 부스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제주 강창화 구장에서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첫 '트로피가 온다' 행사에는 조직위 차범근 부위

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종환 서귀포시장 및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제주 최진철 홍보대사, 제주 유니티드 조성환 감독 등 축구계 유명 인사가 참석하여 대회 홍보에 힘을 보탠다.

16일에는 수원삼성블루윙즈와 광주FC의 K리그 클래식 6라운드가 열리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중앙광장에서 '트로피가 온다' 행사가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는 열태영 수원시장, 조직위 차범근 부위원장,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 다문화 가족 및 지역 유소년 선수가 트로피 제작식에 참여하여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29일에는 전주 중앙실림광장, 30일에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5월 5일에는 천안충훈운동장, 5월 7일에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회의 트로피를 만나볼 수 있다. /김민근 기자

서부신시가지 악취 줄인다

완산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실명제 도입

전주시 완산구가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길가에 방치된 전용 수거용기를 집중 회수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배출상태와 관련해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낮 시간에는 도로 및 인도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여름철이면 악취까지 더해져 주민불편이 늘어나고 있어 문

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관내에 배치된 음식물 수거용기 총 4만4288여개 중 집중 단속 지역인 서부신시가지 내 흥산중앙로와 흥산남로변에 노상방치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200여개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상호와 주소, 수거업체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제가 본격 시행되면 인근주민 등 통행자들이 배출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거리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모로코 국제교류재단 임원들, 전주시 문화예술 벤치마킹

북아프리카 문화 중심지인 모로코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정수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이에 따라, 전주의 우수한 문화가 모로코에 소개돼,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13일 모로코의 국제교류추진과 해외홍보,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로코 국제교류재단(IMFI: Institut Marocain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의 임원 52명이 전주시 문화예술 벤치마킹 및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다가오는 제18회 국제영화제와 FIFA U-20월드컵 개막전,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등 시정 주요 추진사업들에 대해 청취했다. 또, 천년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모로코와 전주시간 국제교류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